치근절제술을 활용한 발치 전 연조직 개선 처치

드림팩토리치과
윤우혁

심한 결손부를 가진 치아를 발치하게되면, 발치 후 치조골 및 연조직의 결손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것의 재건을 위한 골유도재생술(GBR)이나 연조직 이식과 같은 복잡하고 여러번의 술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수술들은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술후 예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심한 결손부를 가진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건 환자에게도, 술자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이자 부담스런 일이다.

그래서 예후불량한 치아라도 바로 발치하지 않고 발치 전 치근 절제술을 통해 각화치은의 상태라도 개선시켜 준다면, 발치 후 예측되는 결손부의 형태를 개선해주고, 그에 따라 향후 수술의 난이도와 횟수, 그에 따른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3명의 환자의 증례를 통해서 발치 전 치근절제술을 통해서, 발치후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게 한 증례들을 통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제시해보려고 한다.